



[뉴스] 안전성 ↑ 인건비 ↓ 프랜차이즈 24시 무인시스템 확산 02



Economy

코스피	2452.83 (+5.63)	코스닥	840.79 (-10.42)
금리 (미국 3년)	0.976 (+0.017)	환율 (원/달러)	1115.10 (+1.20) (10일)



지난 9일 방문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 전경. /정연우 기자

신도시 '첫삽' 준비 끝 고양선 일산 연장 총력 덕양구 중심 집값 상승

3기 신도시를 가다 2 고양 창릉지구

경기도 고양시 집값은 지난해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고공 행진을 기록 중이다. 창릉지구는 지금 신도시로 변모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메트로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창릉지구에 신설되는 경전철 고양선의 일산 연장 완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교통망 확충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30사단 철거, 경전철 '고양선' 예타 조사 중

지난 9일 찾은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에는 폐기물 처리장과 공장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들이 다수 들어서 있었다.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허허벌판이었다.

지구 내 30사단, 내달 해체 결정 폐기물처리장 등 모두 철거 예정

이재준 시장, 교통망 확충 의지 "고양선 불허땀 LH와 협의 없어"

덕양구, 고양시 집값 상승 주도

고양창릉지구는 도내동·동산동·성사동·용두동·원흥동·행신동·향동동·화전동·화정동 일원 813만㎡를 포함한다. 착공을 시작하면 3만8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창릉지구 주택건설 계획은 기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개발하는 것으로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794만6000㎡)은 전체 개발면적에서 98%를 차지한다.

창릉지구에 가기 위해 경의중앙선 화전역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탔다. 향후 입주민을 위해 교통망 확보가 시급해 보였다. 창릉지구는 GTX-A노선을 포함해 경전철 고양선, BRT(간선급행버스체계)설치 등이 계획된 상태다. 현재 3기신도시를 잇는 고양선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창릉지구 내에는 육군 30사단과 예비군훈련장이 위치해 있다. 창릉지구

를 탐방하면서 군부대에서 나오는 총성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국방개혁에 따라 다음달 30사단 해체가 결정되면서 3기신도시로 새롭게 단장할 준비를 끝마쳤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창릉지구 내에 있는 30사단, 예비군 훈련장, 폐기물처리장과 공장들은 지하로 내려갈 레미콘공장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될 예정이며 30사단 부지는 약 100만㎡ 규모의 도시 숲이 조성될 것"이라며 "현재는 고양선의 일산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고양선 일산 연장 추진이 불가능하면 LH와의 3기 신도시 조성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릉지구에 신설되는 고양선의 예정 노선은 6호선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다. 오는 2027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부선과 연결되면 여의도까지 25분 안에 갈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건설로 내년 초까지 총 30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다. 현재 창릉지구는 지상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토지보상 공고는 내년 상반기 예정됐다. 보상금으로는 3.3㎡당 130만~170만원, 총 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선정 발표 후 고양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한동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수요자의 전화가 빗발쳤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양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농지로 활용할 목적이 아니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고양 덕양구 집값, '고공행진'

지난해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발표 후 고양시 부동산 시세를 선도했던 일산구의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현재는 창릉지구가 포함된 덕양구가 고양시에서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달 전월 대비 3.44%의 상승률을 기록한 성남 중원구에 이어 경기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4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현대차, 엔비디아와 커넥티드카 협력 확대

정의선, 기술협업 통해 미래차 주도권 강화

(현대차그룹 회장)

고성능 반도체 엔비디아 드라이브 2022년 출시 전 차종에 적용 추진

정의선 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양한 전략적 투자와 제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공지능(AI) 컴퓨팅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와 커넥티드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차 시장 주도권 강화에 나선다. 또, 미국의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고성능 정보 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적용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를 2022년부터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커넥티드카는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교통정보, 공사 구간, 뉴스, 음악, 날씨, 스포츠 등 외부 정보와 연계해 차량 탑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승자에게 최적화된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려면 고성능 정보처리 반도체를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래픽 인지·처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들이 개발한 정보처리 반도체인 엔비디아 드라이브는 빠른 속도로 대용량의 데이터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2015년 기술 개발 협약을 맺고 커넥티드카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출시한 제네시스 GV80과 G80에 엔비디아 드라이브를 최초로 적용한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를 탑재했다.

이번 협약 확대로 현대차그룹은 2022년부터 출시하는 현대·기아차·제네시스 브랜드의 모든 차량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운영 체제는 답러닝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지원하는 '고성능 컴퓨팅', 차량과 주변 인프라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심리스 컴퓨팅', 운전자의 의도와 상태를 파악하는 '지능형 컴퓨팅', 차량 내·외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해 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보안 컴퓨팅' 등 4가지 핵심 역량을 갖췄다. <4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백신 기대감에 금값 뚝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이 온스당 5%(97.30달러) 떨어진 1,854.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버리고 위험자산으로 확 쏠린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연합뉴스

GS 리테일-홈쇼핑 합병... 새 유통공룡 탄생

자산 9조 통합법인 내년 7월 출범 온-오프라인 핵심 역량 극대화

GS리테일과 GS홈쇼핑의 합병으로 초대형 커머스기업이 탄생한다. 합병 후 존속법인인 GS리테일이며, 합병비율은 '1대 4.22주'로서 GS홈쇼핑 주식 1주당 GS리테일의 신주 4.22주가 배정된다.

GS리테일과 GS홈쇼핑 양사의 이사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합병 안건을 출석이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와 내년 5월경 개최될 예정인 양사의 주주총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7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 결정은 오프라인 유통에 강점을 가진 GS리테일과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에 강점을 가진 GS홈쇼핑의

결합을 통해 국내외 유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자산 9조원, 연간 취급액 15조원, 하루 거래 600만 건에 이르는 초대형 온·오프라인 겸업 단일 유통기업이 탄생한다.

GS리테일이 전국 1만5000개 이상의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고, GS홈쇼핑이 3000만에 가까운 TV홈쇼핑 시청가구와 함께 18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모바일 쇼핑앱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번 두 회사의 결합은 국내 유통업계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번 합병은 양사가 가진 구매력(바잉파워)과 판매력(세일즈파워)을 극대

화한다는 점뿐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에서 각기 다른 핵심역량을 가진 두 회사가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고 성장의 돌파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합병으로 새로 탄생하는 GS리테일은 GS홈쇼핑의 온라인 커머스 역량을 통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GS리테일이 보유한 전국적인 점포망과 물류 인프라를 통해 TV홈쇼핑과 모바일커머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 확보와 상품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합병법인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